

남원시, 설연휴 종합대책 추진

27일 ~ 30일까지... 쓰레기·도로 복구·교통 등 7개 대책반 운영

남원시는 설연 휴기간인 27일부터 30일까지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쓰레기·도로복구·교통·상하수도·재난재해·보건의료 등 7개 대책반을 운영해 긴급상황에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 강화, 재난취약시설 합동점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한다.

또, 설명절기간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반을 편성·운영한다. 시는 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에 대한 사전·점검 및 운송질서 단속을 실시하고,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공영주차장 222개소를 무료로 운영한다.

초·중·고 운동장도 개방해 구성원 및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불가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과 이·미용료, 목욕료 등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한다. 불가 특별지도 점검반도 민·관 합동으로 편성해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선다.

생활쓰레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청소인력의 휴일근무와 청소민원처리반을 가동한다.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 조치, 수도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비상급수 체지 유지, 하수처리장 시설을 점검한다.

응급환자발생에 대비해 응급 의료기관(남원의료원),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76개 보건기관과 당면약국 등 총 103개소를 지정 운영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보건소(625-4000, 또는 620-7918)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원시는 연휴기간 중 2.7(일)~9(화) 3일 동안 광한루원, 테마파크 등을 무료개방하여 외지 관광객들에게 관광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이 우리 전통 맛을 도시민에게 전해주는 '장독대 분양행사'를 추진해 순창의 전통장(醬) 문화를 도시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순창군, 장독대 분양행사 추진

오늘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서... 고추장·된장 담기 등

순창군이 우리 전통 맛을 도시민에게 전해주는 '장독대 분양행사'를 추진해 순창의 전통장(醬) 문화를 도시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장독대 분양행사는 대를 이어 전통장 담기를 계승해온 장인들의 마을인 순창고추장마을에서 도시민과 기능인들이 함께 배주를 만들고 장을 담가 참여 도시민에게 분양하는 행사다.

군은 최근 아파트 등 주거문화 변화와 핵가족 화 등으로 장을 담가 먹는 가정을 점차 찾아보기 힘든 실정과 전통 장맛을 집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 제공, 전통음식을 통한 가족공동체 복원을 위해 장독대 분양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순창의 장독대 분양행사는 100% 순창에서 직접 재배한 콩과 천일염을 이용하고 수십 년간 전통 고추장, 된장, 간장을 담가온 기능인들이 함께 참여해 도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를 심어주고 있다.

1구와 당 된장 13kg, 간장 3.6kg를 만들거나 고추장 5kg, 된장 6kg, 간장 3.6kg를 만드는 두가지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며 1구와당 분양가격은 200,000원이다.

군은 지난 23일부터 장독대 분양행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은 2월 24일까지 진행하며 순창군청 장독대 분양행사 담당자 전화 650-5455번 /순창=이양원 기자

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오는 2월 25일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 모여 전통장 기능인들과 함께 고추장, 된장 담기, 간장 달이기 등을 진행하고 우리 전통 식생활 체험과 발효소스 도구, 민속마을 투어 등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서구화된 식생활로 아이들이 우리 전통장을 기반으로 한 식단과 그 속에 담긴 조상들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장독대 분양행사를 통해 조상의 지혜가 담긴 발효 전통장을 가족과 함께 직접 담그는 기회도 갖고 일년 내내 건강에 좋은 전통 장을 맛볼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분양행사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읍 농촌 지도자회, 애향 장학금 100만원 기탁

임실읍 농촌지도자회(회장 박대식)는 24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재)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 장학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난해 1백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박대식 회장, 김성권 총무도 각각 1백만원을 개인적으로 기부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박대식 회장은 "선진 기부문화가 지역 농촌지도자회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교육수준 향상으로 미래를 이끌 인재가 많이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 이사장은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봉황인재학당 사업과 각종 장학사업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품격 있는 교육문화와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임실군 애향장학회는 지난 1995년 6월 설립돼 현재까지 35억 1천 3백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으며 현재까지 1천여 명이 넘는 학생에게 19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애향장학회 기부금 일백만원 정 임실읍 농촌지도자회



생활밀착형 상수도 서비스 도입

고창군, 원격 자동 검침 시스템 추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생활밀착형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올 하반기 검침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자동 검침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선진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70세 이상 홀로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물 사랑 안심지원단'을 운영한다.

현재는 상수도 문제로 홀로 어르신이나 문의를 할 경우 담당자가 현장에 출장해 누수 등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물 사랑 안심지원단'이 운영되면 원격검침시스템을 활용해 홀로 어르신 가구의 실시간 수도사용량을 파악하고 누수를 조기 발견해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고 경제적 부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시스템을 활용해 수도 사용량 유무에 따라 이상 여부를 파악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마을이장 등에 연락·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사회안전망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안심지원단'에 긴급상황을 대비한 심폐소생교육도 실시하는 등 누수관리를 비롯해 사회안전망 역할에도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시범 마을을 운영하며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보다 정확한 검침과 누수를 재고를 위해 노력해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읍 류제관씨, 백미 100포 기탁

고창군 고창읍 석탄마을 류제관(전 전북 농업경영인협의회 회장)씨가 설 명절을 앞두고 400만원 상당 20kg 백미 100포를 고창읍에 기탁했다.

류제관씨는 토마토재배와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전문농업인으로 매년 이웃돕기 성금과 백미를 꾸준히 기탁해 오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고향에 보내주는 사업을 해오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류제관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온정을 느끼고 힘든 일상에서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학준 고창읍장은 "매번 소외계층에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여러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함께 따뜻한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읍은 기탁된 쌀을 관내 경로당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과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향가 오토캠핑장 위탁 운영자 모집

순창군이 2015년 완공한 향가 오토캠핑장 사용 수익허가 입찰 공고를 실시하고 위탁 운영자 모집에 나섰다. 입찰기간은 지난 23일부터 2월 6일까지로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입찰할 수 있다.

향가 오토캠핑장은 풍산면 대가리 7-1번지 일원에 2만5,313㎡ 규모로 가족용 발길로 6동, 단체용 발길로 3동, 캠핑데크 37면이 조성돼 있다. 그밖에 편의시설로 관리동, 취사동, 판매동, 미니잔디구장, 어린이놀이터, 방송설비, CCTV 등 최신 부대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주말 예약하기 어려운 캠핑장으로 이름이 날만큼 전전후 캠핑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캠핑장 앞으로 섬진강이 고요히 흐르고 뒤로는 옥출산 산책코스가

잘 조성되어 있어 휴양지로도 일품이다. 최근에는 향가 목교에 파노라마 LED조명시설 설치, 향가터널 이색벽타를 조성해 야간 관광객을 대폭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향가 오토캠핑장은 최신 캠핑시설은 물론 주위에 다양한 관광자원과 수려한 풍경을 갖춘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경쟁력 높은 캠핑장이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입찰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가 오토캠핑장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고 참조 및 문화관광과 관광자원개발계 전화 063-650-163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의회의, 임시회 폐회

임실군의회의는 24일,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정활동과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과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15건의 안건을 의결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올 한해 추진할 주요현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군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한 물론, 군정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뜻 깊은 회기였다.

문영두 의장은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시 군정요구 및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을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교통, 의료, 환경정비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구성원 및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줄 것"과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는 물론, 불가안정과 민생안정 대책에도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

남원시의회(의장 이석보)는 지난 23일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따뜻한 손길과 훈훈한 정을 나누고자 군경부대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나섰다.

이석보 의장과 양희재 부의장은 이날 군경부대를 비롯하여 관내 소외계층 입소 사회복지시설 20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관리자 및 입소자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며 애로사항 등을 듣고 격려했다.

또한 이석보 의장은 한분 한분 입소자 분들과 손을 잡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소외감 없이 따뜻한 관심과 희망찬 설 명절을 맞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남원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슬로건으로 소외받는 이웃 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하고 정남치는 행복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읍 류제관씨, 백미 100포 기탁

고창군 고창읍 석탄마을 류제관(전 전북 농업경영인협의회 회장)씨가 설 명절을 앞두고 400만원 상당 20kg 백미 100포를 고창읍에 기탁했다.

류제관씨는 토마토재배와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전문농업인으로 매년 이웃돕기 성금과 백미를 꾸준히 기탁해 오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고향에 보내주는 사업을 해오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류제관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온정을 느끼고 힘든 일상에서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학준 고창읍장은 "매번 소외계층에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여러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함께 따뜻한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읍은 기탁된 쌀을 관내 경로당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과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 설명절 특별방범 활동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남계파출소(소장 이동권)에서는 설명절 전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방범활동에 나섰다.

특별방범활동은 금융기관과 편의점, 금은방 등에 대한 방범지도를 실시하고 다목적이고 능동적인 순찰활동으로 가시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금융기관에서는 방범용CCTV 작동상태 및 출입구 시정장치 등을 점검하고 방문 주민에게 방범의식을 고취하는 등 가시적인 방범활동을 추진하며 특히, 설명절 전 5일장에는 교통혼잡 및 납치 등 범죄예방을 위해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범죄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권 파출소장은 "선제적 방범활동으로 평온하고 정이 넘치는 설명절이 되도록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